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 당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6. 9.(금) 01:00 배포 2023. 6. 9.(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대 본격화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글로벌)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목)(파리 현지 시각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3개국 통상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였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 국가 간 디지털통상협정('21. 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 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하였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 절차가 개시되었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세계(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세계(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책임자	과 장	고장원 (044-203-4880)
		담당자	사무관	이채원 (044-203-488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공동 보도자료 원문

JOINT PRESS RELEASE ON THE ACCE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1. Ministers of Chile, New Zealand, and Singapore, Parties of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met on the sidelines of the OECD Ministerial Council Meeting in Paris, France on 8 June 2023. The Ministers welcomed the substantial conclusion of discussions on the ROK's accession to the DEPA.

Accession of the ROK to the DEPA

2. The DEPA Parties are delighted that discussions for the ROK to accede to this world-leading agreement have substantively concluded, making it the first partner outside of founding members Chile, New Zealand, and Singapore, to join.

3. The DEPA represents a new form of economic engagement and trade in the digital era. It establishes new approaches and collaborations in digital trade issues, promotes interoperability between different regimes, and addresses the new issues brought about by digitalization. It is designed to be an open and inclusive framework open to economies that are able to meet the standards of the Agreement.

4. The DEPA was signed in June 2020 by the three DEPA Parties – Chile, New Zealand, and Singapore. The ROK formally applied to join the DEPA in September 2021, and the Accession Working Group (AWG) to oversee its accession process was formed in October 2021. Singapore is the Chair of the AWG.

5. The AWG agreed that the ROK had demonstrated the means by which it will comply with the high standards of the Agreement. There was also excellent potential for DEPA parties to work collaboratively on projects of mutual interest, in areas such as electronic invoicing, consumer protection, the exchange of electronic trade documents, and cross border data transfers.

6. The AWG will work with the ROK to finalise the accession process in a timely manner consistent with domestic procedures in each Party and the DEPA Accession Process.

7. Chile Vice Minister of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Claudia Sanhueza said, "Chile warmly welcomes today's announcement of the substantial conclusion of negotiations with Korea and its readiness to become the first acceding Party to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The growing interest of economies to be part of this agreement has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such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We look forward to boosting the potential for DEPA parties to work collaboratively on projects of mutual interest in emerging areas that might affect digital trade."

8. New Zealand Minister for Trade and Export Growth Damien O'Connor said, "Given Korea's strengths in the digital economy and our close bilateral ties, New Zealand is very pleased that Korea will become the DEPA's first new member. Korea's accession further promotes the DEPA as a pathfinder agreement to attract other economies with similar ambitions in the digital economy. As partners, we seek to inform and set new standards for international digital trade rules and agreements."

9. Singapore Minister for Transport and Minister-In-Charge of Trade Relations S Iswaran said, "As the first aspirant economy, the substantial conclusion of accession negoti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is a significant milestone. The DEPA provides an important framework for its Parties to collaborate in emerging areas that might affect digital trade, with open and interoperable standards and common principles. I welcome the ROK as the fourth Party to the DEPA and look forward to our countries collaborating further on projects of mutual benefit to our economies and people."

10. Republic of Korea (ROK) Minister for Trade Dukgeun Ahn said, "The substantial conclusion of Korea's accession negotiations to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marks a meaningful step forward for Korea as it signals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its digital trade network. I also believe that the successful accession of the ROK is testament to the DEPA as an open and inclusive digital platform in the Asia Pacific region. Looking ahead, we, as the first partner outside the three founding members, will surely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DEPA membership by supporting other aspirant economies in completing their accession process."

11. In addition to the ROK, China, Canada, Costa Rica, and Peru have submitted formal requests to accede to the DEPA. China's and Canada's AWG discussions are ongoing. DEPA Parties look forward to continuing discussions with Costa Rica, and engaging with Peru.

Jointly issued by the Vice Ministry of Trade, Chil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ew Zealand;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OK.

8 June 2023

For media queries, please contact:

[For Chile]
Claudia Sanchez
Head of Press Department
Directorate of Communications, Undersecretary of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Email: csanchez@subrei.gob.cl

[For New Zealand]
Spokespers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mail: media@mfat.govt.nz

[For Singapore]
Sarah Wong
Assistant Director
Communications and Engagement Division,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Email: Sarah_wong@mti.gov.sg

[For ROK]
Kyungshin Choi
Foreign Media Spokespers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mail: kchoi@motie.go.kr

ANNEX A: Photo

Caption:
Vice Minister of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Claudia Sanhueza (Chile); Minister for Trade and Export Growth Damien O'Connor (New Zealand); Minister for Transport and Minister-in-Charge of Trade Relations S Iswaran (Singapore); and Minister for Trade Dukgeun Ahn (ROK) met on the sidelines of the OECD Ministerial Council Meeting in Paris, France to welcome the substantial conclusion of discussions on the ROK's accession to the DEPA.

참고 2 **공동 보도자료 [비공식 번역본]**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

1. 2023년 6월 8일,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당사국 및 대한민국의 장관들이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한국의 DEPA 가입 논의가 실질타결되었음을 환영하였다.

한국의 DEPA 가입

2. DEPA 당사국들은, 세계를 선도하는(world-leading) 동 협정에 원회원국인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외 첫 번째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가입 논의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3. DEPA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과 무역의 양상을 대표하며,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협력방식을 수립하고, 서로 다른 체제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며,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DEPA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프레임워크로서, 해당 규범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가들의 추가적인 가입에 열려있는 협정이다.

4. 2020년 6월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3개국이 DEPA에 서명하였으며, 2021년 9월 한국의 DEPA 가입 공식 신청 후, 같은 해 10월에 싱가포르를 의장국으로 하여 한국의 가입 절차 진행을 위한 가입작업반(Accession Working Group)이 구성되었다.

5. 가입작업반은 한국이 동 협정의 높은 규범 수준을 이행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향후 회원국 간 전자송장, 소비자보호, 전자무역문서 교환,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상호 관심 영역에 대한 협력 프로젝트 진행 등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

6. 가입작업반은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 및 DEPA 가입절차에 따라 한국의 가입절차를 적시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7. 칠레 클라우디아 산후에사(Claudia Sanhueza) 국제경제 차관은 "칠레는 금일 첫 번째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DEPA 가입 협상 타결선언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동 협정의 일원이 되고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국제 교역에서 이러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이슈 해결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DEPA 당사국 간 디지털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영역들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 등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 뉴질랜드 데미언 오코너(Damien O'Connor) 통상수출성장 장관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한국의 강점과 양국 간 긴밀한 양자 관계를 고려하여 뉴질랜드는 한국이 DEPA의 첫 번째 신규 가입국이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의 가입은 DEPA가 디지털 경제의 선구자적인 협정으로서 유사한 포부를 가진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양국은 디지털 교역의 규범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알리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9.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이자 무역관계 담당 이스와란(S Iswaran) 장관은 "첫 번째 가입 희망국으로서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며(significant milestone), DEPA가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표준과 공통의 원칙을 통해 디지털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언급하고, "DEPA의 4번째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가입을 환영하며 당사국 내 경제와 국민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 대한민국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에게 DEPA 가입협상 타결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며, 한국의 가입을 통해 DEPA가 개방적, 포용적인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 한국은 첫 번째 DEPA 가입국으로서 신규 가입국들의 가입절차를 도와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하였다.

11. 한편,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및 페루가 DEPA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현재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작업반 협의가 진행중이며, DEPA 당사국들은 코스타리카 및 페루와의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는 칠레 외교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으로 배포되었다.

2023년 6월 8일

<각국 홍보팀 연락처>

[칠레] Claudia Sanchez
Email: csanchez@subrei.gob.cl

[뉴질랜드] Spokesperson
Email: media@mfat.govt.nz

[싱가포르] Sarah Wong
Email: Sarah_wong@mti.gov.sg

[한국] Kyungshin Choi
Email: kchoi@motie.go.kr

<사진 캡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클라우디아 산후에사 통상차관(칠레), 데미안 오코너 통상장관(뉴질랜드), 이스와란 무역관계장관(싱가포르)이 OECD 각료이사회 계기(프랑스 파리)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